

海部総理大臣のスピーチ

海部総理大臣が1月9日の夜、韓国の青瓦台（大統領官邸）で開かれた、盧泰愚大統領主催の晩餐会で語ったスピーチの最後の部分。

盧泰愚大統領閣下は日本での国会演説の最後に、「日本の青年と韓国の青年が、大陸を連結し世界をひとつに結ぶ友情旅行を楽しむ時代をともに創造しよう」と語られ、万雷の感動的な拍手を引き起こされました。

私もまったく同感であります。私の韓国訪問が夢ある明るい日韓関係の未来のための種のひとつになることを願って止みません。

盧泰愚 大統領 閣下께서는 日本 國會演說의
마무리에서 日本의 청년과 韓國의 청년이 대륙을
연결하고 世界를 하나로 잇는 友情의 旅行을
즐기는 時代를 함께 創造하자고 호소하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감동적인 박수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똑같은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韓國 訪問도 꿈이 있는 밝은
日.韓關係의 未來를 위하여 그런 씨앗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